

한국 사회 문제의 지각 차원

한덕웅 · 최훈석 · 강혜자 · 이경성 · 박군석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전국 5개 지역 대학생과 학부모 1812명 가운데 40% 이상이 한국의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판단한 65개 항목들이 구성하는 중요한 지각 차원을 알아 내고, 이 차원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와 시급한 사회 문제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68명이 이 사회 문제들의 유사성에 따라서 10개 내외의 범주로 분류한 자료로부터 65개 사회 문제들 상호 간의 거리값 행렬을 얻고, 이를 군집 분석과 다차원 분석했다. 두 분석 방법을 통해서 해석이 일치될 수 있는 두 차원 (stress=12.8%)을 얻었다. 두 차원 가운데 제 1차원은 정치·경제·사회 문제로 구성된 제도·구조적 정부 정책-문화·교육·청소년 문제로 구성된 국민 생활 문화 차원이었으며, 제 2차원은 경제·지역 불공정-생활 환경 차원으로 명명되었다. 사회 문제로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한 자료를 보면, 정치인 부정 부패/부조리, 환경 오염, 교통 체증/교통난과 농수산물 수입 개방/우루과이 라운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15위 이내의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중요성과 시급성의 순위가 크게 달랐다. 시급성 판단에서는 사회의 구조·제도·정책 과제들이 높은 순위에 많이 포함되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사회 문제들에 관한 개괄적 연구가 미비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한덕웅 (1994a)은 전국 대학생과 일반 성인이 지각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보고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조사 대상의 40% 이상 다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65개 사회 문제들을 가려 내어, (1)이 사회 문제들이 구성하는 지각 차원을 알아 내어 간결한 해석을 시도하고, (2)이 사회 문제들의 중요성과 해결되어야 할 시급성을 판단한 결과물 토대로 사회 문제로서의 우선 순위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서구 심리학계에서는 사회심리학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20여년 전에 이론의 한계, 현실적 관련성, 방법론적 제한점 및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다 (예: Israel & Tajfel, 1972; Strickland, Aboud, & Gergen, 1976). 이 가운데 현실적 관련성은 사회심리학이 다루고 있는 각 사회에서 당면한 구체적 사회 문제들을 연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사회심리학계는 현재까지 현실적 관련성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사회학계를 보더라도 중요한 한국 사회 문제들을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룬 연구는 시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예: 고영복, 1991).

국내 사회심리학계에서 이 과제에 대한 반성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한국의 중요한 사회 현상의 이해와 사회심리학적 설명에서 사회심리학이 무력하여,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제시되었다 (차재호, 1991, pp.457-458).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현상을 다루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한국적 사회 심리학을 정립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민경환, 1991)도 지나친 자기 비하로만 보기 어렵다. 그간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사회심리학계에서 이론이나 (예: 이수원, 1987; 정양은, 1970, 1976; 조국호, 1990; 최상진, 1992; 한덕웅, 1993a,b,c, 1994b), 접근법 (예: 민경환, 1991; 차재호, 1991; 한규석, 1991)의 모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실적 관련성 문제는 이론적 접근의 방향과 분석의 단위, 그리고 방법론적 제한점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 방면에서의 새로운 지평이 제시되지 않고는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기 어렵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중요한 사회 현상에 대한 치열한 문제 의식 없이 이 과제들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달리 말하면 연구자가 사회 현상에 대한 강렬한 문제 의식을 지녀야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제한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면한 사회적 현실 문제들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 개인의 관심사로 간주된 채, 사회심리학계에서 사회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은 불행한 일이다. 특히 최근 이른바 문민정부 이후,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제시하는 사회 문제들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심리학계에서 현실 관련성을 추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 방면의 활발한 연구가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필자 (한덕웅, 1994a)의 선행 연구에서 한국의 사회 문제로서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항목들만을 가려 내어, 중요한 사회 문제들로 구성되는 지각 차원을 알아 냄으로써, 차원별로 축약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이 차원들을 중심으로 중요성이 높거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

된 사회 문제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공통적으로나 차별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회 문제로서의 중요성은 모든 사회 문제 항목들 가운데서 가려낸 항목별 백분율로 측정하게 된다. 반면 사회 문제로서의 시급성은 조사 대상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서 가려낸 항목들 가운데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항목들로서 다시 추려낸 항목별 백분율로 측정한다. 따라서 시급성이 높게 판단된 항목들은, 조사 대상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현실적 해결의 요구가 매우 높은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방 법

사회 문제의 지각 차원

절차의 개요. 사회 문제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순위에 따라서 65개 항목을 가려내어, 사회 문제의 유사성을 근거로 분류한 자료를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및 다차원 분석 (multi-dimensional scaling) 했다. 이 다차원 지각 차원에 의해서 사회 문제로서의 중요성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판단한 결과를 비교했다.

조사 대상 및 실시. 조사 대상은 총 68명으로 서울 지역의 남,여 대학생 58명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원생 10명이었다. 조사는 1994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중요한 사회 문제 항목 선정. 중요한 사회 문제 항목은 한덕웅 (1994a)의 자료에서 선정하였다. 1993년 11월에 전국 1,812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 자료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40% 이상이 중요하다고 반응한 70개 항목들을 가려내었다. 이 가운데, 응답자들의 전체 반응 백분율로 보면 70위 이내에 포함되지만 성별·지역별 또는 연령별로 각각 100위 이하가 되는, 폐품 재활용 (중요성 46위), 청소년 성범죄/성적 문란 (중요성 64위), 도시 휴식 공간 부족 (중요성 66위), 한탕주의 만연 (중요성 68위), 사치성 해외 여행 (중요성 69위) 등 5개 항목을 제외한 65개 문항

을 가려 내었다.

군집분석 및 다차원 분석 자료의 수집. 65개 사회 문제 항목들을 각각 카드 65장에 기입하였다. 각 조사 대상들은 무작위로 섞여서 제시된 사회 문제 항목들을 의미 유사성에 따라서 10개 내외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각 범주별 카드의 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한 범주에 한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 하나의 범주에 2개 이상의 항목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간 평균 거리 측정법을 이용한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과 ALSCAL 프로그램으로 다차원 분석 하였다.

다차원 분석 결과의 해석을 위한 의미 평정 자료 수집. 다차원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필자들이 선정한 17개의 7점 의미미분 척도들에서 65개 사회 문제 항목들 각각의 의미를 평정토록 하였다. 의미 평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자들이 선정한 의미미분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제도 문제--개인 행동 문제, 개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공공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 정부 정책 문제--국민 행동 문제, 정부 책임--국민 책임, 물질적 문제--정신적 문제, 불평등과 관련 없다--불평등과 관련된다, 정치와 관련 없는 문제--정치 문제, 경제와 관련 없는 문제--경제 문제, 교육과 관련 없는 문제--교육 문제, 청소년과 관련 없는 문제--청소년 문제, 가치관과 관련 없는 문제--가치관 문제, 환경과 관련 없는 문제--환경 문제. 이 평정에는 남녀 대학생 267명이 참가하였다.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로 각 사회 문제 목록에 대한 평정치들의 중앙값을 구하여 이를 준거값으로 하였다. 각 차원에서 65개 사회 문제 목록들의 평정치를 예언요인으로 중다 회귀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차원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 의미미분척도들 가운데 차원의 해석에 중요한 척도는 그림 2, 3에 선분으로 그려 넣었다.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과 시급성 비교

절차의 개요. 선행 연구 (한덕웅, 1994a)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얻은 사회 문제의 중요성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 판단 결과를 비교하고자 지각 차원 분석

에 이용된 65개 항목에서의 반응들을 검토한다. 이 비교에서는 지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결한 해석도 시도된다. 사회 문제로서의 중요성 판단에 근거를 두고 선정된 65개 항목 이외에 한덕웅 (1994a)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 문제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336개 항목들 가운데서 시급성 판단에서만 65위 내에 포함된 항목들도 추가로 검토한다.

중요성과 시급성 반응 방법. 항목별 중요성을 판단할 때는 한국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336개 항목 가운데서 수에 제한 없이 체크하도록 하였다. 문제 해결의 시급성 평가는 이미 체크한 모든 항목들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다섯 개만 고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한 항목을 모든 조사 대상이 고른 경우를 100%로 계산하였다. 이처럼 사회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판단 자료는 동일 시점에서 동일한 조사 대상으로부터 얻었다.

결과 및 논의

중요한 사회 문제의 군집 분석 결과

중요한 사회 문제 65개를 군집 분석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그림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는 사회 문제들은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정한 15개 사회 문제들이다. 고딕으로 표기된 사회 문제들은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서 15위 내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65개 사회 문제들은 가장 높은 위계에서 환경 오염 군집과 나머지 군집으로 크게 묶인다. 환경 오염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문제들은 다시 하위의 두 군집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정치·행정·경제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들인데, 이 하위 군집에는 정치·행정의 구조적 문제, 경제 문제 (빈부, 정책, 농촌) 및 국민 복지 (교통, 의료, 복지 정책) 문제들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의 하위 군집은 국민 생활 문화의 문제인데, 이 하위 군집에는 치안, 청소년, 가치관/도덕 및 교육/문화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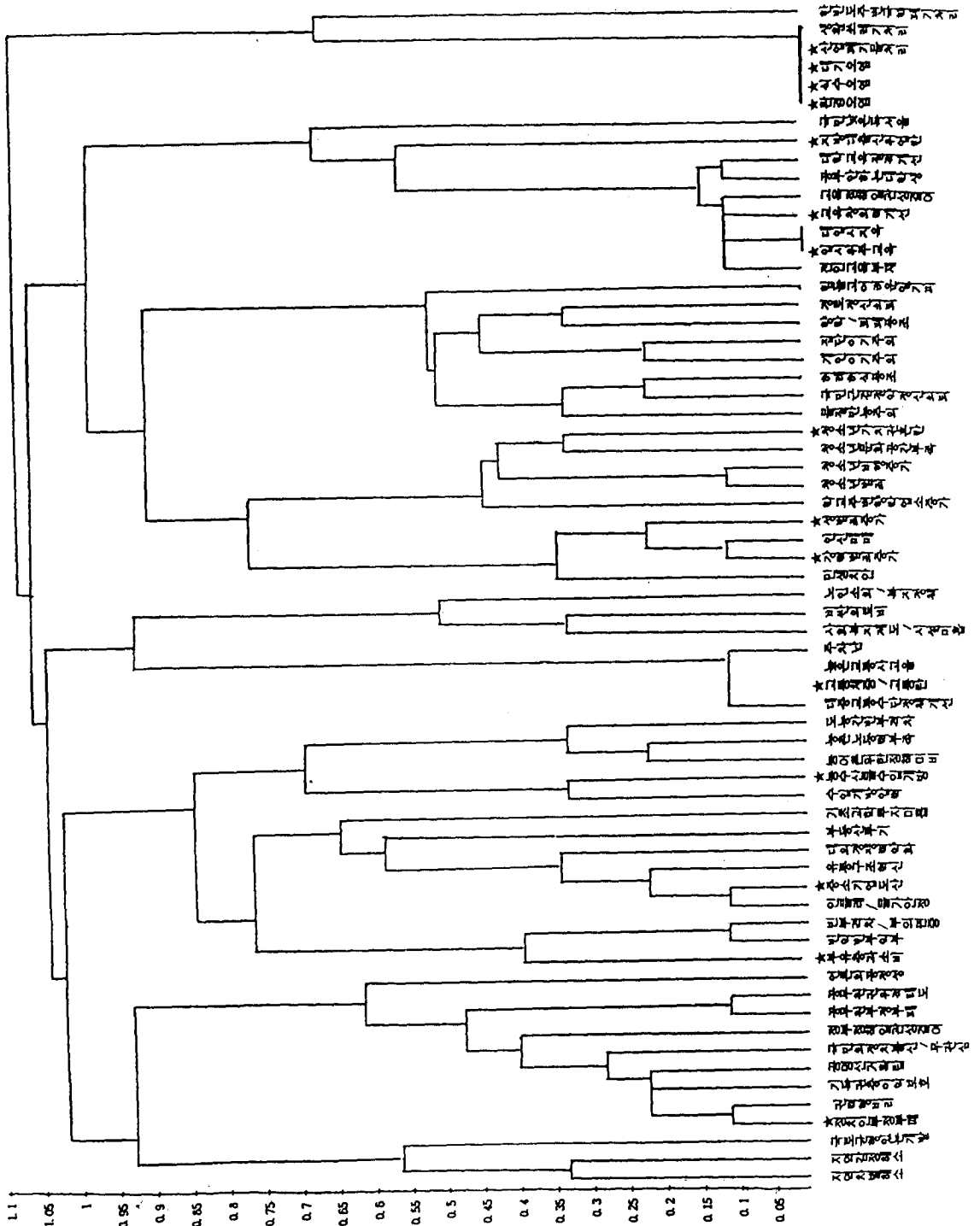


그림 1. 사회 문제의 군집 분석 결과

주. 그림 안의 ★표는 중요성 순위가 15위 이내의 항목이며, 고딕체는 시급성 순위가 15위 이내인 항목들임

표 1. 사회 문제의 다차원분석 결과

순서	사회 문제 용어	원*		순서	사회 문제 용어	차		원*
		1	2			1	2	
1	환경 오염	.6403	-1.1061	34	공명 선거 확립	2.0099		-1.508
2	정치인의 부정부패	2.0309	.0333	35	기초과학/기술 투자 미흡	-.0624		.0826
3	교통 체증/교동란	.6832	-.8915	36	전인 교육 부재	-2.1784		-.6957
4	직수 오염	.5427	-1.4503	37	철단 이기주의	-.4185		-.0031
5	산업 폐기물 처리	.6401	-1.1066	38	공무원 부정부패/부조리	1.1093		.0192
6	임시 위주 교육	-2.1477	-.8717	39	한반도 주변국 핵폐기물 처리	.8619		-.6876
7	성범죄 증가	-1.3580	.4183	40	사회복지 제도/시설 미흡	.1786		.0662
8	대기 오염	.5427	-1.4504	41	힘들고 어려운 일 기피	-.5503		.2005
9	부유층 과소비	.1496	.6225	42	권력형 비리	2.0284		-.3483
10	농수산물 수입 개방	1.1097	1.1329	43	민생치안	.0580		-.0705
11	청소년 가처관 혼란	-1.6851	-.1421	44	유통 구조 혁신	.9417		1.3671
12	중소 기업 도산	.6140	1.6966	45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9162		.3646
13	강력 범죄 증가	-.7924	-.3447	46	주차난	.5334		-1.0800
14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부재	-2.1778	-.7187	47	공무원의 권위적 태도	.9232		-.1488
15	지방대 출신 취업난	-.5737	.1309	48	인플레	.8896		1.1514
16	대학 입시 지옥	-2.0698	-.8012	49	국민의 정치 불신/무관심	1.6357		-.0758
17	개인 이기주의	-.5882	-.0979	50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1.7361		.0797
18	지역 차별 해소	1.1986	.5433	51	인신 매매	-1.3106		.4347
19	불질 만능주의	-.6429	.4269	52	빈익빈 부익부	.7779		.8993
20	생활 쓰레기 처리	.6277	-1.1993	53	대학 교육 질적 개선	-1.8255		-1.0232
21	노인 소외/복지 정책	-.2907	.4366	54	기득권층 이익 위주의 정치	1.8671		.0732
22	농어촌을 위한 정책 미비	.9153	.7844	55	언론의 공정성	.4170		-.1915
23	대중교통의 일관성 결여	-2.0496	-.9903	56	경로 정신 쇠퇴	-.9755		.0348
24	대중교통수단 정책 개선	.6944	-.8886	57	도시 농촌간 빈부 격차	.9423		1.1522
25	청소년 비행 증가	-1.7984	-.4523	58	수입 개방 압력	1.2774		1.0173
26	공부 안하는 대학생	-2.1591	-.6199	59	농촌 노동력 부족	.9934		1.2621
27	높은 교통 사고율	.0569	-.9665	60	국민의 근검 절약 정신 쇠퇴	-.4791		.3216
28	청소년 문화 공간 부족	-1.2886	-.0783	61	국민의 낮은 독서율	-1.4133		-.1124
29	형탁/회배 풍조	-.9035	.3064	62	학교 주변 향락업소 증가	-1.6506		-.1570
30	빈부 격차	.7752	.9539	63	대외 경쟁력 약화	.6561		1.6225
31	허태 허식 풍조	-.5942	.6506	64	비판 의표미	.3057		.4561
32	지역 감정 해소	.7213	.3273	65	부동산 투기	.2447		.5866
33	청소년 범죄	-1.2620	-.7343					

주. *표 아래에 제시된 수지들은 해당 차원의 좌표치들임.

중요한 사회 문제의 지각 차원

65개의 중요한 사회 문제들의 성질을 더욱 축약된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차원 분석한 결과, stress 12.8% 수준에서 두 차원을 얻었는데, 이 두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들의 좌표는 표 1에 제시되어 있고, 이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중요성을 판단한 순위로 볼 때 15위 이내의 항목들은 고딕으로 표시하였다.

사회 문제의 지각 차원을 2차원으로 나타낼 경우, 제 1차원 양극은 정부의 정치·정책 과제들 - 문화·교육·청소년과 관련된 국민 생활 과제들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제 2차원은 경제·지역 불공정 - 생활 환경 차원으로 이름지을 수 있겠다. 이 두 차원 가운데 정부의 정치·정책 과제들은 경제·정치 문제와 아울러 환경 오염/교통 문제들을 모두 포괄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교육·청소년의 극에 위치한 문제들은 양극화될 수 있을 만큼 극단 값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림 2의 제 1상한과 제 4상한에 사회 문제들이 고루 퍼져있는 바와는 대조적으로, 문화/교육/청소년의 극에는, 제 2상한과 제 3상한에 고루 분포되지 않고, 3상한 중간 부분에 몰려서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두 차원보다 더 간략한 형태로 단일 차원 해석을 시도할 경우, 그림 2에 해석 축을 넣어서 직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정치·경제·교통·환경과 관련된 정부 정책 과제들과 문화와 교육·청소년·가치관 문제들과 관련된 국민 생활 문화 과제들로 양분할 수 있다.

사회 문제로서의 중요성과 시급성 비교

중요도 판단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사회 문제의 지각 차원 추출에 사용된 65개 항목들의 중요성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판단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이 결과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유사 항목들을 일반적 범주별로 분류하여 빈도를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또한 사회 문제의 지각 차원을 더욱 간결하게 해석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시급성 판단에서 순위로 볼 때 15위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고딕으로 기재하여,

2차원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이상에 제시한 표 1과 표 3을 참고하고, 그림 2의 중요한 사회 문제의 2차원 좌표 및 그림 3의 시급한 사회 문제의 2차원 좌표를 비교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첫째, 사회 문제로서 중요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판단한 결과로 볼 때, 모두 매우 높은 백분율로서 1위와 2위에 놓인 항목들은 환경 오염 (중요성 1위, 79.5%; 시급성 2위, 29.0%)과 정치인 부정 부패/부조리 (중요성 2위, 66.9%; 시급성 1위, 38.5%) 문제였다. 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안들 가운데 이 두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상위 15위까지 시급한 사회 문제들을 내용별로 보면, 정치 (4항목), 경제 (3항목), 교육 (2항목), 지역 (2항목) 및 환경, 교통, 과학/기술, 치안 (각 1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결과는 한국의 긴급한 사회 문제들이 내용에 있어서 다양하여 다원화된 대책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치·경제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들이 7개 항목으로 다수 포함됨을 볼 수 있다.

셋째,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시급한 해결이 요청된 15위까지의 항목들 가운데 3위까지인 정치인 부정 부패, 환경 오염, 및 교통 체증과 10위 이하의 농수산물 수입 개방 항목 (중요성 13위, 시급성 12위)들에서만 일치하고, 이를 제외하면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범주에서 중복되는 항목들도 적었다. 큰 순위 차이를 보인 항목의 예로는 대기 오염 (중요성 8위, 시급성 88위), 지역 감정 해소 (중요성 32위, 시급성 4위)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사용된 65개의 중요한 사회 문제 항목들 가운데 25개 항목들은 시급성이 65위 밖의 순위였고, 전체 336 항목들 가운데 중요성이 232위인 정부의 민족 통일 의지 미약, 217위의 정치 불안, 219위의 지방 자치제 실시, 212위의 정치 민주화, 151위 상대적 빈곤, 134위 핵위협 등은 시급성에서 65위 이내의 항목들에 포함되었다.

표 2. 사회 문제로서 중요성과 시급성 각각의 순위와 백분율

문항	중요성		시급성		문항	중요성		시급성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1. 환경오염	1	79.5	2	29.0	34. 공민권 확대	34	45.1	15	5.0
2. 정치인의 부정 부패	2	66.9	1	38.5	35. 기초과학/기술 부흥	35	44.9	10	6.0
3. 교통 체증/교통난	3	62.0	3	9.0	36. 전인 교육 부흥	36	44.8	8	7.5
4. 산수 오염	4	60.7	5	2.5	37. 첨단 이기주의	37	44.8	51	2.5
5. 산업 위주 교육	5	60.7	8	1.5	38. 공무원 부패/부조리	38	44.5	23	4.0
6. 임시별과 교가	6	60.5	18	4.5	39. 한반도적 체제/미투	39	44.1	90	1.5
7. 생태기 오염	7	56.9	30	3.5	40. 사회복지 제도/시설 미비	40	44.0	64	2.0
8. 부유층 과소비	8	56.0	188	1.0	41. 헌법정비	41	44.0	75	2.0
9. 농수산물 가치권	9	52.8	33	3.5	42. 권력형 비리	42	44.0	88	1.5
10. 청소년 가치관 혼란	10	51.4	13	5.5	43. 민중 교육	43	43.9	12	5.5
11. 중소기업 증가	11	51.2	22	4.0	44. 유류의 국산화	44	43.8	79	1.5
12. 장의정율 향상 시키는 교육 부재	12	50.4	74	2.0	45.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45	43.3	26	4.0
13. 지방정부를 활성화 시키는 교육 부재	13	50.3	54	2.5	46. 공무원의 권위적 태도	46	42.9	68	2.0
14. 지방대학 출신 취업난	14	49.6	46	3.0	47. 인플레이션	47	42.7	86	1.5
15. 대학 입학 지옥	15	49.6	17	5.0	48. 인플레이션	48	42.7	5	8.0
16. 지역차별 해소	16	49.5	55	2.5	49. 국민정치의 일관성 결여	49	42.6	28	4.0
17. 생활쓰레기 처리 정책 미비	17	49.1	45	3.0	50. 인신매매	50	42.3	6	7.5
18. 민중주의	18	49.0	7	7.5	51. 대학 교육 질적 개선	51	42.3	99	1.5
19. 노인 수의/복지 정책	19	48.9	24	4.0	52. 대한 교육 개혁	52	42.4	27	4.0
20. 노인 수의/복지 정책	20	48.6	69	2.0	53. 노동권 증대	53	41.8	40	3.0
21. 교육 정책의 일관성 결여	21	48.2	65	2.0	54. 노동권 증대	54	41.8	38	3.0
22.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22	47.6	16	5.0	55. 언론의 공정성	55	41.5	39	3.0
23.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23	47.4	16	5.0	56. 언론의 공정성	56	41.5	37	3.0
24.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24	47.3	9	6.5	57.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57	41.5	127	1.0
25.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25	46.9	25	4.0	58.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58	41.5	76	1.5
26.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26	46.8	32	3.5	59.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59	41.3	102	1.5
27.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27	46.4	59	2.0	60.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60	41.1	102	1.5
28.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28	46.4	109	1.5	61.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61	41.0	97	1.5
29.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29	46.2	142	1.0	62.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62	40.6	93	1.5
30.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30	45.9	63	2.0	63.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63	40.2	178	0.5
31.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31	45.7	11	5.5	64.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64	40.1	49	2.5
32.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32	45.6	91	1.5	65.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65	40.1	113	1.0
33. 대중교통 수단 정책 개선	33	46.3	77	1.5	66. 도시농촌간 빈부 격차	66	39.9	24	1.5

(시급성 순위 65위 이내에 포함된 나머지 항목들)

문항	중요성		시급성		문항	중요성		시급성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민중 주체성 확립/역사관 확립	79	38.5	14	5.0	서민 생활고	98	36.3	43	3.0
경기 침체/불황	104	35.6	19	4.5	정치적 무능	138	32.0	44	3.0
정치 위계/지도자의 자질/술선수범 부패	73	38.7	20	4.5	문화적 사대주의	158	31.0	47	2.5
법정서 문란/불공평한 법정행	134	32.3	21	4.5	정치불안	217	27.0	53	2.5
주체정체/가격/보급물/면중	78	38.1	29	3.5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219	26.8	48	2.5
내집 마련 곤란	87	37.3	31	3.5	사회계층간 위화감	151	31.4	56	2.5
농은부의 민중동일 촉진의지 미약	83	37.7	34	3.5	농어촌 경제파탄	85	37.7	57	2.0
정부는 실업률	71	39.1	35	3.5	사회정의 실현	190	29.1	58	2.0
정부는 민중동일 촉진의지 미약	232	25.6	36	3.5	산업체의 남녀차별	101	35.9	60	2.0
교육제도 개선	148	31.6	41	3.0	전교조 인성/해직교사부재	174	30.0	61	2.0
지역간 빈부격차	90	37.2	42	3.0	정치민주화	212	27.5	62	2.0

표 3. 시급성과 중요성별로 본 사회 문제의 범주별 빈도

범 주	시 급 성		중 요 성	
	15위까지	65위까지	15위까지	65위까지
정 치	5(+2)	16(+6)	1	7(+4)
교 육	2	9	3	9
행 정	-	1	-	2
외 교	-	1	-	1
환 경	1	2	4	5
경 제	2	7	1	7
치 안	1	4	2	4
교 통	1	2	1	4
지역 차별	1(-1)	3(-3)	-	2(-2)
빈부 격차	1(-1)	3(-3)	-	2(-2)
농 촌	-	2	1	4
청 소 년	-	2	1	4
가치관/문화	-	6	1	9
노 인	-	1	-	2
보진/의료	-	1	-	1
과학 기술	1	1	-	1
언 론	-	1	-	1
사회 복지	-	1	-	1
주 택	-	2	-	-
	15	65	15	65

주. 표에서 +, - 표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처럼 두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 결과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시급한 사회 문제들을 고를 때 이미 가려낸 중요한 사회 문제들 가운데 다섯 개 항목만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범주 상호 간에 혹은 각 범주별로 사회 문제들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비중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 지각 등도 해결의 시급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넷째, 긴급한 15개 사회 문제들의 성질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2차원 공간에 긴급한 과제들을 위치시킨 그림 3을 보면, 시급한 해결이 요청되는 사회 문제들을 크게 분류할 때 두 차원의 세 극점에 몰려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치, 경제, 농

촌, 지역 문제들은 제 1상한에 위치하고, 교통, 환경의 생활 환경 문제는 제 4상한에 위치한다. 그리고 교육 정책 일관성, 및 전인 교육은 제 3상한에 놓인다. 이 결과는 시급하게 해결이 요청되는 15개 사회 문제들이 대체로 세 극점에 놓인다고 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극점들 가운데 교육 문제는 정치 구조적 문제들이라기보다 국민의 태도와 행동에 관련되는 과제로서 지각되고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급한 해결이 요청되는 사회 문제들 가운데 정책이나 실행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됨을 볼 수 있다. 15개 항목 가운데 적어도 우측 1상한과 4상한에 위치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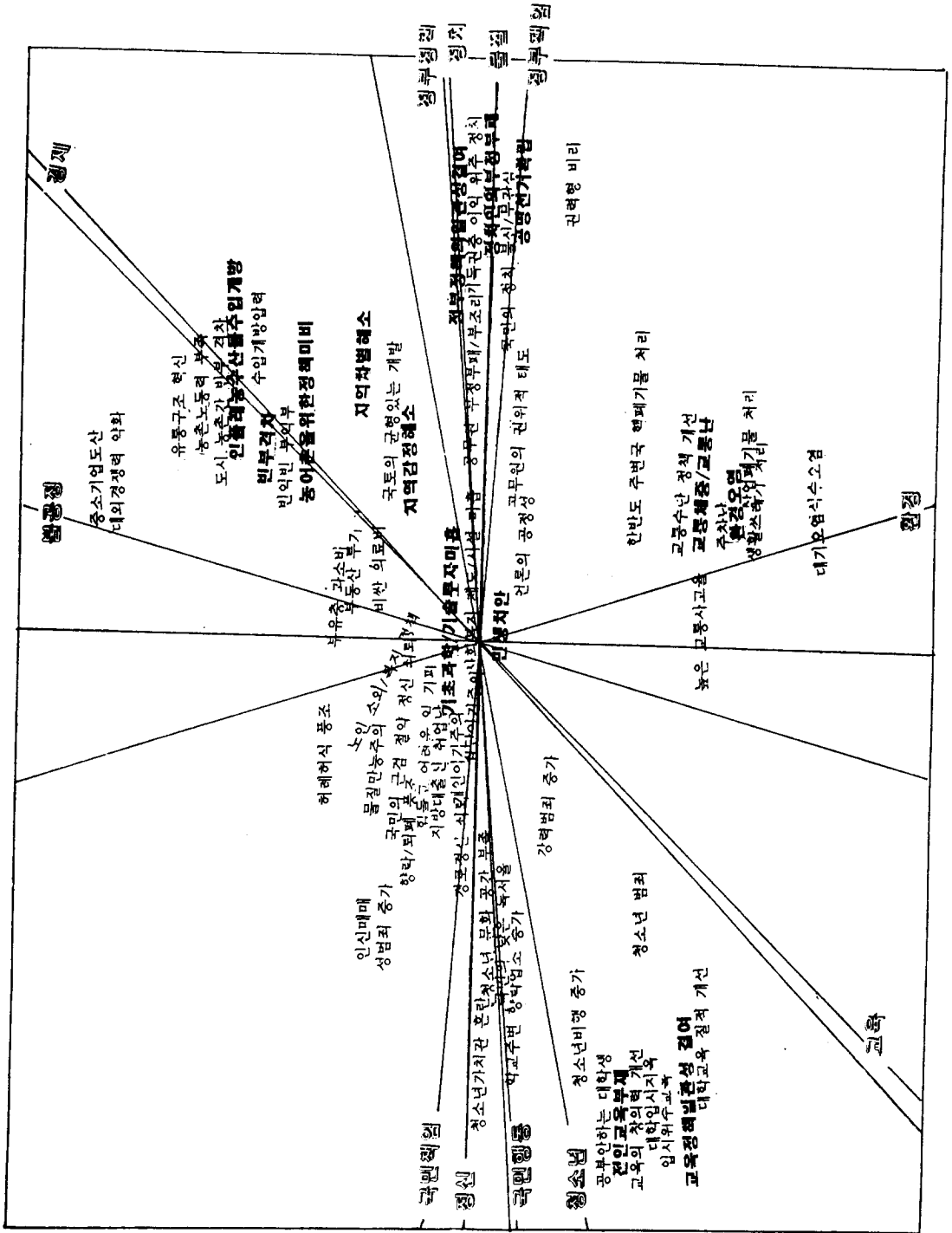


그림 3. 시급한 해결이 요청된 사회 문제의 2차원 구조

여개 항목들은 정부의 주도적 정책 수립과 실천 없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국민 생활 문화에서 시급한 사회 문제들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국민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역량에 원인이 있다고 외적 귀인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앞에서 시급한 사회 문제들의 특징점을 살펴본 데 이어서, 이 과제들을 사회 문제로서의 중요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지적된 상위 과제들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서 정치인 부정 부패와 부조리에 대해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 결과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가려 내게 했을 때, 이 문제가 환경 오염 다음의 2위로 지적된 바와 다소 다르다. 환경 오염 문제는 시급성에서 2위로 판단되었다. 시급성에서 3위로 지적된 사회 문제는 교통 체중/교통난/낮은 도로율이었는데, 사회 문제로서의 중요성에 따라서 항목을 고르게 했을 때에도 3위 (62.0%)였다. 이 결과에서 정치인 부정 부패/부조리, 환경 오염 및 교통 문제가, 사회 문제로서의 중요성이나 해결의 시급성 모두에서, 가장 핵심적 사회 문제로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서 4위 이하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사회 문제로서의 중요성을 판단했을 때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해결의 시급성에서 4위로 지적된 사회 문제는 지역 감점 해소였는데, 이 문제의 중요성 지각에서는 32위 (45.6%)였다. 또한 시급성에서 7위로 지적된 지역 차별 해소:정책/인사/개발/발전/재정 지원 역시 지역 간 불공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사회 문제는 중요성의 판단에서 17위 (49.0%)였다. 또한 해결의 시급성에서 5위인 인플레이/물가 안정 및 6위의 정부 정책의 일관성/장기적 정책 결여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지적된 반응 백분율을 보면, 각각 49위 (42.7%)와 52위 (42.4%)에 위치했다.

8위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적된 항목은 교육 부

분의 전인 교육 부재였고 (중요성 36위, 44.75%), 9위는 교육 정책의 일관성/장기 계획 결여 (중요성 23위, 47.40%)였다. 이 두 교육 문제의 시급성 순위가 높은 결과는, 중요성을 판단했을 때 교육 부분에서 입시 위주 교육 (6위, 60.50%, 시급성 18위), 교육의 창의력, 사고력 개선 및 대학 입시 지옥 (16위, 49.45%, 시급성 55위)이 이들 항목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인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처럼 중요성과 해결의 시급성 판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 이유도 시급성 판단에서 다섯 개 항목만을 고를 때 교육 전반의 문제들 가운데 상대적 비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 문제로서 해결의 시급성 판단에서 10위로는 기초과학/기술 투자 미흡이 지적되었다. 이 항목을 중요한 사회 문제로 지각한 조사 대상의 백분율을 보면 순위가 현저히 낮았다 (35위, 44.85%). 이 결과 역시 사회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시급성에서 국가의 정책 과제가 중요하게 지적됨을 보이는 예로 볼 수 있다.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로서 순위 11위부터 15위까지는 차례대로 (11)빈부 격차/부의 편중 (중요성 30위, 45.9%), (12)민생 치안 (중요성 41위, 45.8%), (13)농수산물 수입 개방/우루과이 라운드 (중요성 10위, 51.4%), (14)민족 주체성 확립/역사관 확립 (중요성 77위, 38.0%), (15)공명 선거 확립:제도 와 풍토 마련 (중요성 34위, 44.1%) 등이 포함되었다.

그림 2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성과 해결의 시급성 측면에서 15위까지의 사회 문제들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중요한 사회 문제들은 네 개의 상한에 고르게 흩어져 있으나, 이와 달리 시급성에서 15위까지에 포함된 사회 문제들은 우측 1상한과 4상한에 대다수인 10개 항목이 위치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시급성에서 긴급한 사회 문제들 가운데, 교육과 청소년 문제를 제외한, 11개 항목이 정치·경제·환경이라는 구조적이며 정책적 과제 차원에 포함되는 문제들임을 보여준다.

참 고 문 헌

- 고영복 (1991). 현대 사회 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민경환 (1991). 사회심리학 연구의 활성화 방안: 역사 형성에의 참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 이수원 (1987). 한국인의 인간 관계와 정 공간. 현대 사회, 28, 심리학 특집: 현대 사회와 인간 적 응, 146-157.
- 정양은 (1970). 감정론의 비교 연구: 사회적 감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 (3), 77-90.
- 정양은 (1976). 심리 구조 이론의 동서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 (2), 68-79.
- 조금호 (1990).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 (I): 인 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1), 59-81.
- 차재호 (1991).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의 전개.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455-461.
- 최상진 (1992). 한국인의 '문화적 자기': 하나의 발견 적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263-274.
- 한규석 (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 특수성: 한국 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1), 132-155.
- 한덕웅 (1993a,b,c). 퇴계 성리학에 관한 성격 및 사회 심리학적 접근(I)(II)(III). 退溪學報, 78, 40-49, 79, 35-87, 80, 43-108.
- 한덕웅 (1994a).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문제, 1 (1), 20-53.
- 한덕웅 (1994b). 퇴계 심리학: 성격 및 사회 심리학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Israel, J., & Tajfel, H. (Eds.) (1972). *The context of social psychology: A critical assessment*. London and New York: Academic Press.
- Strickland, L. H., Aboud, F. E., & Gergen, K. J. (Eds.) (1976). *Social psychology in transition*. New York: Plenum Press.

Perceived Dimensions of Social Problems in Korea

Doug-Woong Hahn, Hoon-Seok Choi, Hye-Ja Kang,
Kyung-Seong Lee, Kun-Seok Park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1) the perceived dimensions of important social problems and (2) urgency of social problems in current Korean society. Eighteen hundreds and twelve respondents includ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5 regional areas were asked to identify important social problems, and 65 items on which more than 40% of respondents agreed were, then, selected. The inter-item distance matrix of those 65 items was computed by using the similarity data obtained from independent 68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consistently indicated the following two dimensions (stress=12.8%). The first dimension was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government policies vs. people's life style, which were composed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vs. cultural, educational, and juvenile problems, respectively. The second dimension was economic and regional injustice dimension vs. daily life environment dimension. Corruption of politicians, environmental pollution, traffic problems, and lift market/Uruguay Round were judged as highly important and urgent social problems. The perceived urgency of remaining items differed from the importance judgment. Regardless of the importance, issues concerning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problems were interpreted as highly urgent problems.